

2024년 4월 1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1분기 실적시즌을 앞둔 대응 전략

한국 증시는 1) 미국 3월 비농업 부분 고용 및 JOLTs 등 주요 고용 지표, 2) 뉴욕 연은 등 주요 연은 총재 발언, 3)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 및 한국의 3월 수출, 4) RBA 통화정책회의, 5)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등에 영향 받을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690~2,790pt)

매크로 상으로는 미국의 3월 비농업부문 고용, JOLTs 등 고용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한국의 3월 수출(컨선 4.0%YoY, 2월 4.8%) 및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관전 포인트. 전체 수출은 2월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수급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중인 반도체(2월 +66.7%), 자동차(2월 -7.8%), 바이오헬스(+9.3%), 기계(+1.2%) 등 개별 업종의 수출 실적 변화가 관건이 될 전망. 더 나아가 1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3월 수출 데이터(1일)와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5일)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업종들의 1분기 실적을 가늠하는 프리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을 것.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지연
jeehyun12@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3월 29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신규재료 및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반도체, 저PBR,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등 순환매 흐름 이어지며 보합세 (KOSPI -0.07%, KOSDAQ +0.17%)

25일(월) 국내 증시는 지난주 랠리의 속도 부담 속 반도체, 저 PBR 중심으로 코스피의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 반면 코스닥은 개별 호재에 따른 삼천당 제약(+29.94%) 상한가 등 바이오 업종으로 수급 쏠림 현상 나타나며 1%대 급등하는 등 혼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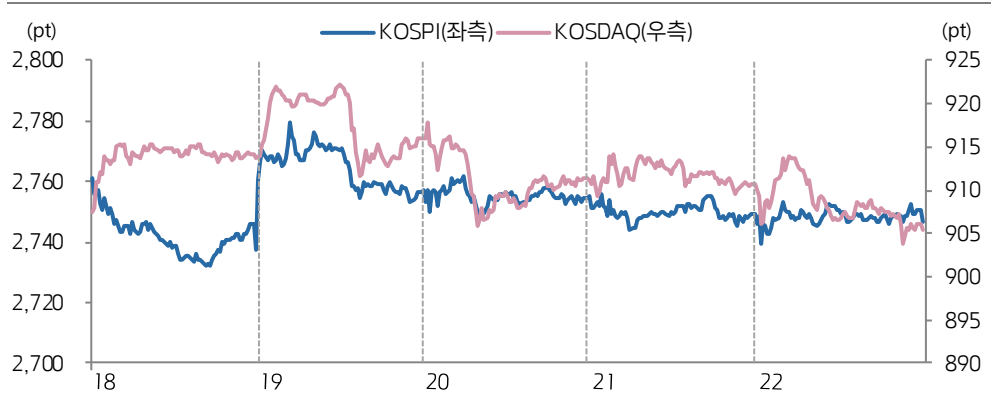
27일(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연고점 1349원 경신. 환율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위안화, 엔화 등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인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를 지속했다는 점은 긍정적.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 완화, PCE물가 지표 발표 이전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 확대 등 대외 여건은 우호적인 가운데 1분기 마지막 거래일 리밸런싱 영향 및 개별주 순환매로 제한적인 움직임 보임.

미 증시는 금리하락 기대감이 빅테크 외 소비재, 산업재, 제약, 부동산 등 경기민감주, 태양광 등 소외 성장주로 확산되며 강한 미국의 경기 및 자본지출에 베타하는 양상.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는 3.4%로 잠정치 3.2% 상향조정. 개인소비 및 기업투자는 상향된 반면 PCE물가는 헤드라인 1.6%, 근원 2.0%로, 근원PCE는 0.1%p 하향조정. 경제지표 여전히 견조하며 미 경기 강세와 물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뒷받침.

반도체 업종의 경우 미 대선을 앞두고 보조금 수혜 및 투자발표 등 미국발 낙수효과에 따른 수혜, SK하이닉스 미국 패키징 공장 투자 소식 등 호재 이어지며 외국인 순매수 유입. 저PBR주는 은행, 증권 배당락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되기도 했으나, 외국인 순매수 기조 이어지며 하단 지지.

업종별로 기계(+6.57%), 전기전자(+2.86%), 의료정밀(+2.71%), 음식료품(+1.16%), 서비스업(+0.71%) 강세, 보험(-7.1%), 증권(-6.16%), 금융업(-5.44%), 전기가스업(-3.441%), 종이목재(-3.44%) 약세. 외인(+17,272억원)은 전기전자(+18,723억원), 기계(+1,832억원), 운수장비(+1,174억원), 유통업(+310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기관(-1,949억원)은 전기전자(+1,644억원), 서비스업(+1,232억원), 의약품(+488억원), 음식료품(+216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4월 1일	월	한국	수출액 (YoY)	3월	4.0%	4.8%
			수입액 (YoY)	3월	-10.0%	-13.1%
		중국	Caixin 제조업 PMI	3월	50.9	50.9
		미국	제조업 PMI	3월	53.2	52.5
			ISM 제조업 PMI	3월	48.4	47.8
	휴장	영국, 독일, 홍콩				
4월 2일	화	한국	CPI (MoM)	3월	0.2%	0.5%
			CPI (YoY)	3월	3.0%	3.1%
		독일	CPI (MoM)	3월	0.5%	0.4%
			CPI (YoY)	3월	2.2%	2.5%
		미국	JOLTs 구인어직 보고서)	2월	8.770M	8.863M
		회의 발언	RBA 통화정책회의 뉴욕, 클리블랜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4월 3일	수	중국	Caixin 서비스 PMI	3월	-	52.5
		유로존	CPI (YoY)	3월	2.5%	2.6%
		실업률	2월	6.4%	6.4%	
		미국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3월	150K	140K
			서비스 PMI	3월	51.7	51.7
			ISM 비제조업 PMI	3월	52.8	52.6
	발언	미 연준의장, 시카고 연은 총재				
4월 4일	목	유로존	PPI (MoM)	2월	-0.6%	-0.9%
			PPI (YoY)	2월	-8.5%	-8.6%
		미국	무역수지	2월	-\$65.7B	-67.4B
		휴장 발언	중국, 홍콩 시카고 연은 총재			
4월 5일	금	한국	경상수지	2월	-	3.05B
		유로존	소매판매 (MoM)	2월	-0.3%	0.1%
			소매판매 (YoY)	2월	-0.6%	-1.0%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YoY)	3월	4.1%	4.3%
			평균 시간당 임금 (MoM)	3월	0.3%	0.1%
			비농업고용지수	3월	203K	275K
			경제활동참가율	3월	62.5%	62.5%
			민간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3월	178K	223K
			실업률	3월	3.9%	3.9%
		행사	미국암학회 AACR(5~10 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 3월 비농업 부분 고용 및 JOLTs 등 주요 고용지표, 2) 뉴욕 연은 등 주요 연은 총재 발언, 3)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 및 한국의 3월 수출, 4) RBA 통화정책회의, 5)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등에 영향 받을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690~2,790pt)

30일(금) 미국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2월 PCE 물가는 헤드라인과 코어가 각각 2.5%(YoY, 1월 2.4%), 2.8%(YoY, 1월 2.9%)로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정체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모습. 하지만 헤드라인(컨센 2.5%)과 코어(2.8%) 모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이미 3월 중순 발표된 2월 CPI와 PPI를 통해 2월 인플레이션 쇼크를 주가에 선반영 해 온 상황. 이날 파월 의장도 2월 PCE 물가를 보고, “연준의 예상에 부합했다”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수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한 점도 1~2월 인플레이션 상승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줄 만큼의 큰 변수로 보지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결국, 2월 PCE 물가와 파월 의장의 발언은 2월 CPI 및 3월 FOMC를 거치면서 주가 상으로 소화해온 것이기에, 금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동시에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남긴 부분. 당장에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겠으나, 향후 연준이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더라도 과거처럼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중금리 및 중물가 시대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시사.

별 다른 이벤트 없이 증시 방향성도 부재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주는 매크로와 증시 펀더멘털 상 대형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음. 이들 결과에 따라 주요국 증시 및 증시 내 업종 간 주가 흐름이 상이해질 것으로 예상.

매크로 상으로는 미국의 3월 비농업부문 고용, JOLTs 등 고용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3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컨센서스는 20.3만건(전월 27.5만건), 실업률 컨센서스는 3.9%(전월 3.9%)로 2월에 비해 고용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 연준의 통화정책과 직결된 지표인 만큼, 최근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았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해당 지표 결과에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또 주 후반인 5일(금)에 발표될 것임을 감안 시, 이번 고용지표는 차주까지도 증시에 파급효과가 가해질 전망.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한국의 3월 수출(컨센 4.0%YoY, 2월 4.8%) 및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관전 포인트. 전체 수출은 2월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수급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중인 반도체(2월 +66.7%), 자동차(2월 -7.8%), 바이오헬스(+9.3%), 기계(+1.2%) 등 개별 업종의 수출 실적 변화가 관건이 될 전망. 더 나아가 1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3월 수출 데이터(1일)와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5일)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업종들의 1분기 실적을 가늠하는 프리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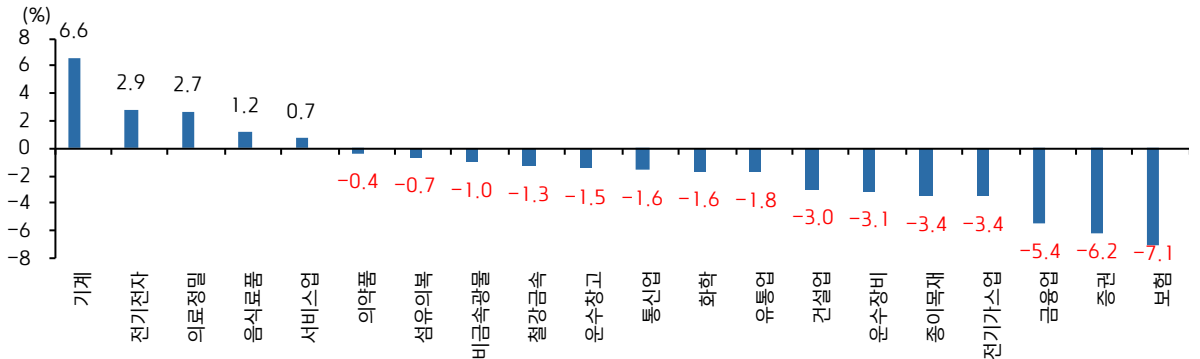
한국 수출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48.4, 2월 47.8)도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 해당 수치 자체보다는 세부 항목 중 전방 수요와 관련 있는 신규주문지수(2월 49.2, 1월 52.5), 인플레이션과 관련 있는 가격지수(2월 52.5, 1월 52.9)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종합적으로 국내 증시는 주 초반에 3월 수출과 ISM 제조업 PMI(둘 다 1일 발표 예정), 주 후반에는 미국 3월 비농업 고용 등 펀더멘털과 매크로 이벤트를 치 르면서 지수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746.63	0.0	-0.1	4.0	3.4
대형주	2,760.44	0.2	0.1	4.6	4.1
중형주	2,863.07	-1.1	-1.1	1.9	2.7
소형주	2,329.33	-0.3	-1.3	0.6	1.9
코스피200	374.63	0.4	0.5	5.4	4.7
코스닥	905.50	-0.5	0.2	4.9	4.5
대형주	2,186.71	-0.8	0.4	8.4	7.7
중형주	760.84	-0.3	0.6	4.0	6.5
소형주	2,850.38	-0.3	-0.4	0.7	1.6
코스닥150	1,520.44	-1.0	0.3	8.4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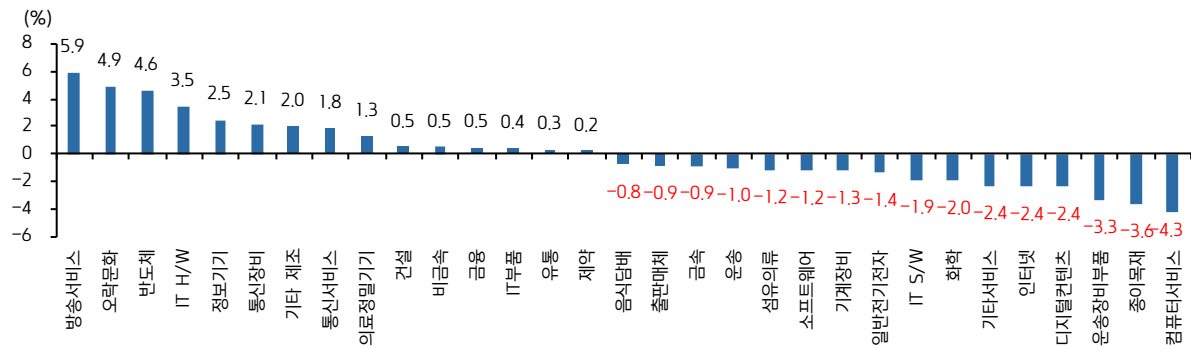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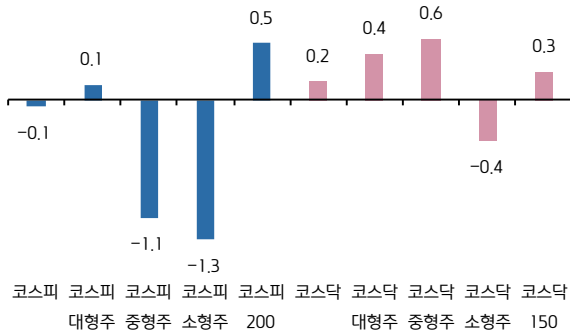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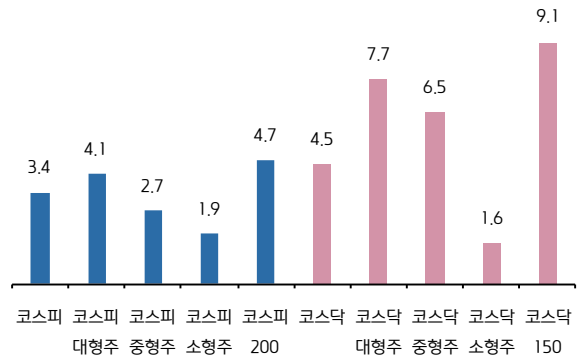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코드	코스피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005930	삼성전자	4,919,101	19,070	4.4
2	000660	SK 하이닉스	1,332,244	7,907	7.8
3	373220	LG 에너지솔루션	924,300	718	-4.5
4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591,456	395	-1.1
5	005380	현대차	492,868	2,068	-4.3
6	000270	기아	443,053	1,692	-2.4
7	068270	셀트리온	416,911	1,607	1.6
8	005490	POSCO 홀딩스	356,891	1,669	-1.5
9	006400	삼성 SDI	323,881	3,184	-0.3
10	051910	LG 화학	309,900	1,06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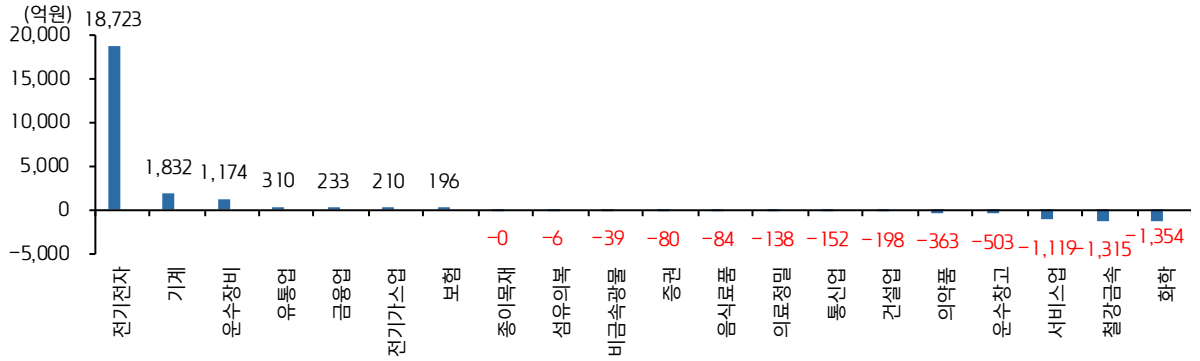
순위	종목코드	코스닥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247540	에코프로비엠	267,976	2,600	-1.1
2	086520	에코프로	168,553	2,124	0.8
3	028300	HLB	137,614	4,449	-5.9
4	196170	알테오젠	104,645	5,572	-3.2
5	022100	포스코 DX	74,345	504	-7.7
6	066970	엘앤에프	63,122	1,350	-6.5
7	403870	HPSP	44,038	1,126	0.8
8	348370	엔켐	41,765	1,300	-1.1
9	068760	셀트리온제약	41,633	416	-8.1
10	058470	리노공업	38,944	530	3.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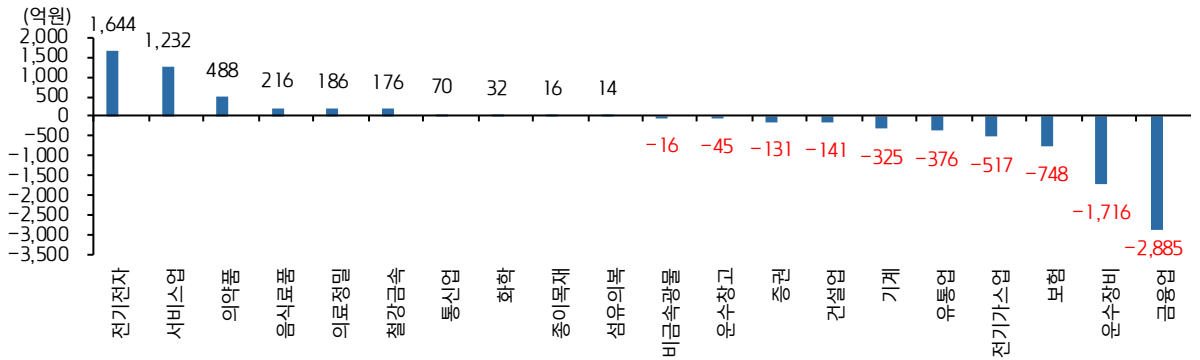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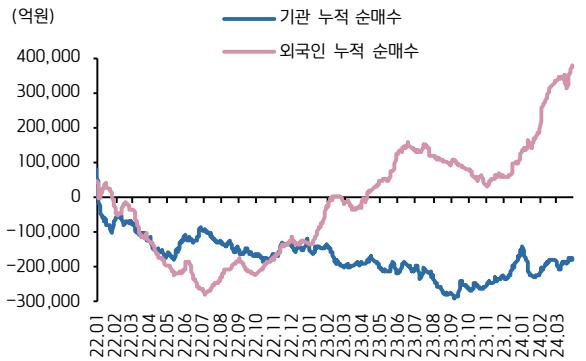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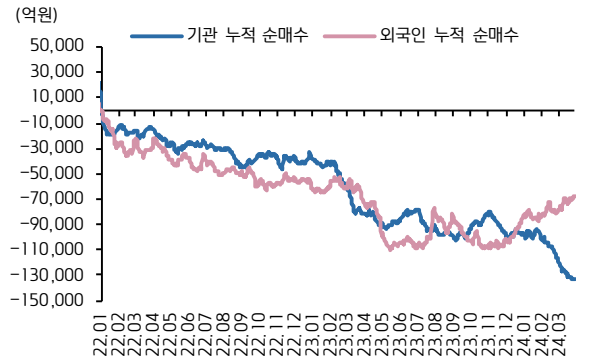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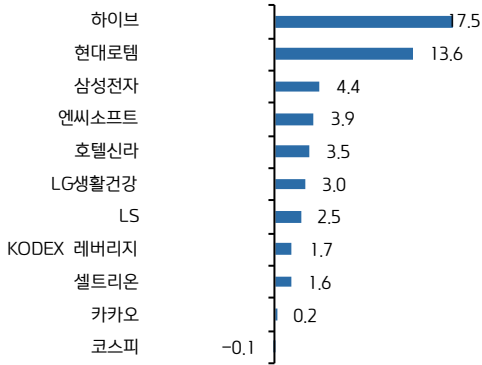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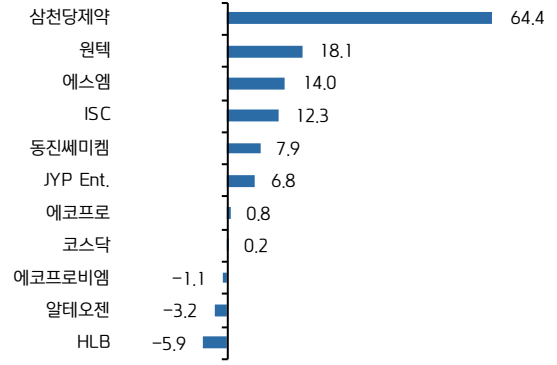
KOSPI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KOSDAQ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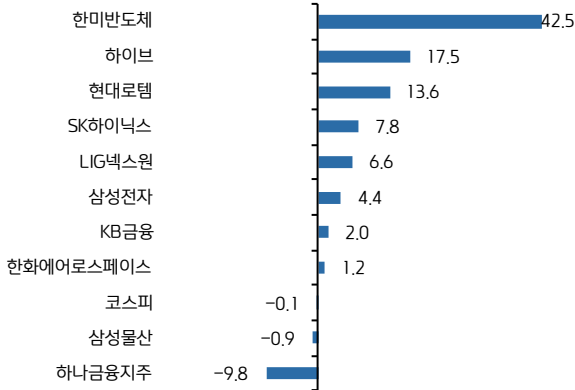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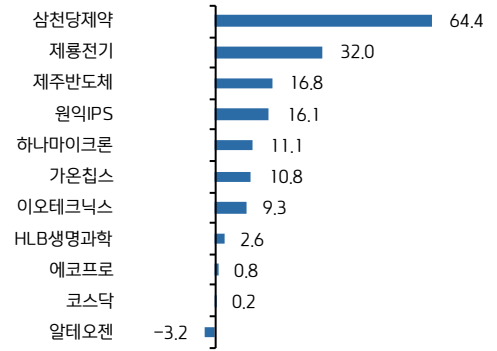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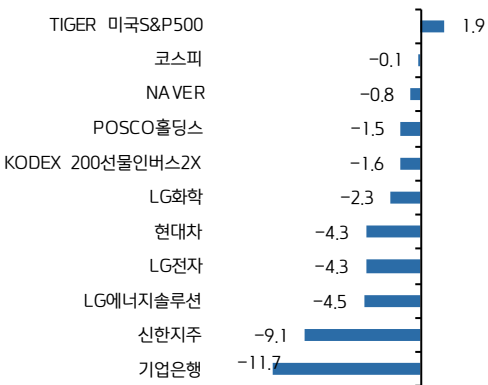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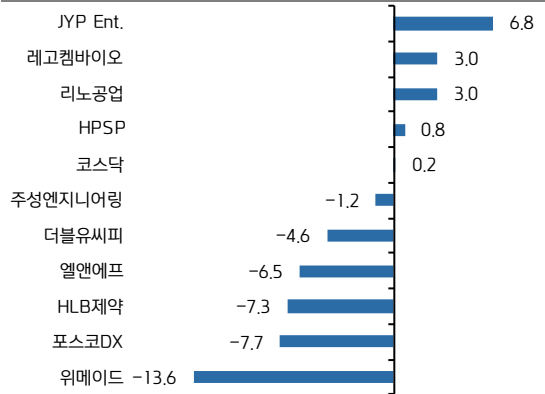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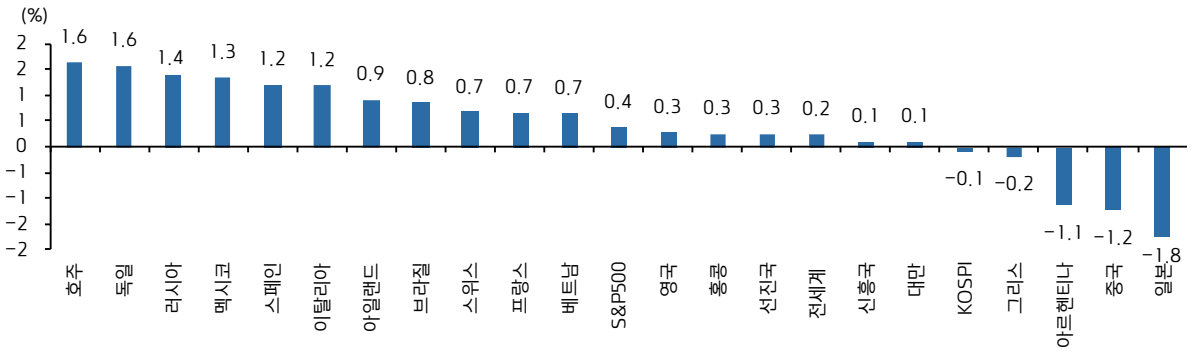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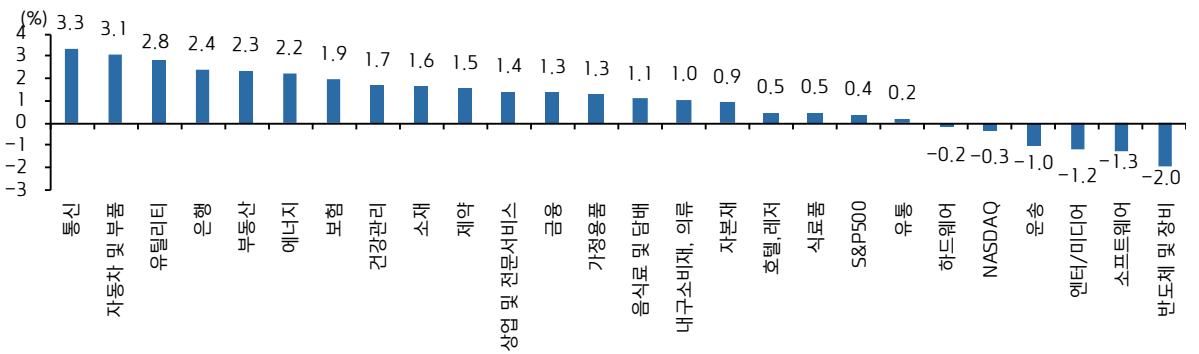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